

‘님을 위한 행진곡’ 모티브...뮤지컬 ‘광주’ 서울서 첫 무대



지난 9일 뮤지컬 ‘광주’가 서울 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첫 선을 보였다. ‘광주’는 고양, 부산, 전주를 거쳐 오는 12월 광주에서 공연한다.

80년 5월에 있는 느낌...주인공 심리변화 전달 안돼

지난 9일 뮤지컬 ‘광주’가 첫 선을 보였다. 서울 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 대극장앞 로비는 ‘광주’를 보기 위한 관객들로 북적였다. 코로나 19로 인해 객석(702석)의 70%만 개방한 탓에 550명의 관객만이 공연장을 찾았는데, 이들은 QR코드로 방문등록을 한 후, 로비에 준비된 포토월에서 사진을 찍으며 입장을 기다리는 모습이었다. 이날 공연에는 민우혁·민영기·장은아·정유지·이정열·서현철 등이 무대에 올랐다. 보통 광주 5·18민주화운동을 다룬 작품들은 그 당시 계엄군의 진압에 희생된 인물들을 주로 다뤘었지만, 이번 작품은 광주시민을 폭도로 몰아 진압하고 정권 전복의 명분으로 삼고, 폭력 시위를 조장할 목적을 띤 편의대원 박한수가 80년 5월 광주에서 시민들의 참상을 목도한 이후 이념의 변화를 겪게 되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두었다. 공연은 편의대원들의 등장으로 막을 올렸다. 박한수 역을 맡은 배우 민우혁은 ‘우리는 편의대’를 부르며 등장했고, 150여분간의 서사의 시작을 알렸다. ‘광주’에 등장하는 모든 남자들은 ‘님을위한행진곡’을 모티브로 제작돼 장면이 바뀔 때마다 관객들의 가슴을 울리게 했다. ‘눈을 떠’, ‘프락치를 죽여’, ‘나를 짓밟고 타 버려라’, ‘그 날이 올때까지’, ‘진실속에 영원히’ 등 약 40여개의 넘버들이 관객과 만났고, ‘님을위한행진곡’ 외에도 ‘애국가’, ‘홀라홀라’ 등 당시 시

변화무쌍 무대·배우들 연기 돋보여 관객 기립박수...12월 광주서 공연

민들 사이에서 불렀던 노래들을 다루었다. 또 김종률 작곡가의 또 다른 곡 ‘검은 리본 달았지’도 등장해 마치 실제로 80년 5월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특히 배우들의 연기가 돋보였다. 배우들은 주먹밥을 함께 만들어 나누어 먹고, 시민군에 쌀, 김밥 등을 전달하는 광주시민들의 모습, 그리고 다함께 민중가요를 부르며 도청 거리로 나서는 장면들을 통해 당시의 암울했던 상황속에서도 웃음과 희망을 잃지 않았던 시민들의 애환과 흥겨움을 동시에 전달했다. 또 옛 전남도청, 5·18민주광장, 야학교실 등으로 변화하는 무대도 눈에 띄었다. 무대는 80년 5월 당시 10일간 봉쇄된 광주를 표현하기 위해 커다란 감옥처럼 연출했으며, 무대 후면 등이 보이도록 만들어져 더욱 몰입도를 높였다. 무대 안쪽에 보이는 후면에는 탱크의 바퀴자국을 모티브로 한 문양들로 가득 차 있었고, 조명이 따라 언뜻언뜻 보이는 이 문양들은 폭압적이고 강압적이었던 당시의 상황을 표현, 공포감을 전달했다. 반면, 등장인물간에 주고받는 대사만으로는 그 당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으며, 가사가 잘 전

달되지 않아 아쉬웠다. 게다가 광주시민들이 왜 무장했는지, 무장투쟁을 두고 분열하는 시민들을 통해 무엇을 전달하고자 했는지, 박한수는 왜 시민들에게 무기를 들면 안된다고 외쳤는지는 알 수 없었다. 특히 주인공 박한수가 광주에 투입된 군인들보다 결국 피해자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나홀로 동떨어져 고뇌하고 갈등하는 박한수는 극 내내 어두운 표정으로 등장했으며, 결국 시민군 편이 되고서야 웃음을 되찾지만 그가 무엇을 전달하려고 했는지는 의문이다. 공연이 끝나고나서는 기립박수와 환호로 공연장이 가득찼다. 이날 공연을 관람객 조세연(31)씨는 “배우들 모두 진심을 다해 노래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며 “배우들의 연기는 좋았지만 박한수와 문수경의 여색한 러브라인, 2막에서 박한수가 허인과 대립하는 장면 등은 불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총 2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된 뮤지컬 ‘광주’는 고선웅 연출가, 최우정 작곡가 등이 참여했다. ‘광주’는 11월 8일까지 서울(대학로 홍익대아트센터 대극장)에서 40여회의 공연을 가진 뒤 고양(11월 14-15일), 부산(11월21-22일), 전주(11월28-29일)를 거쳐 오는 12월 11-13일 광주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공연한다. /전문기자 ej6621@



오는 31일까지 이강하미술관에서 열리는 ‘40년의 염원, 평화의 길-남백회 리마인드 1980-2020’ 전.

‘40년의 염원, 평화의 길’

이강하 미술관, 31일까지 남백회 리마인드전

1980년 11월, 광주 예술의 거리 허름한 찻집에 화가들이 모였다. 5월 항쟁이 벌어졌던 바로 그 해, 민중미술이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던 시절이었다. 고(故)이강하를 비롯해 이영식·송상수·김동훈·이경화·김용민·국송희 7명의 젊은 작가가 자리를 함께 했고 이들은 지역 미술계에 작은 역할이라도 해 보자는 마음으로 그룹 ‘포름’을 결성했다. 이후 청년작가들은 ‘남도의 맥’을 잇자는 의미를 담아 ‘남백회(南白會)’를 결성했고 1982년 첫 그룹전을 열었다. 이강하미술관이 5·18 민주화 40주년 기념 전시로 ‘40년의 염원, 평화의 길’전을 오는 31일까지 개최한다. 광주시의 울 40주년 기념 전시 컨테츠로 선정돼 마련한 기획전이다. ‘남백회 리마인드 1980-2020’이라는 부제가 붙은 이번 전시는 조국통일을 염원했던 이강하와 ‘남백회’ 화우들의 작품을 20년만에 함께 나누는 그룹전이다. 남백회는 이강하 작가가 줄곧 회장을 맡으며 지역을 넘어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이 작家的 고향 후배들과 학교 후배를 중심으로 모인 20명 남짓의 청년작가들은 가족처럼 고민을 나누며 적박한 시대와 지역 여건 속에서 자신의 화풍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남백회 회원들은 진지한 회화성은 곧 진실이며 예술의 진실성은 주장으로만 그치지 않고 자신들의 예술을 정직하고 진솔하게 토로하고 표현하는 데 있다고 믿었다. 남백회는 이 작가가 암투병을 시작하던 2000년초 마지막 전시를 끝으로 활동을 멈추고 만다. 2000년 10월 광주비엔날레전시관에서 열린 ‘남백회 창립 20주년 기념 아름다운 우리 강산’ 전이다. 광주 남백회, 대구 심상회, 부산 구상작업 미술가회, 울산 구상작가전, 대전 대전구상작가협회, 전주 결·나·이·테, 목포 삼목회 등 7개 시도 미술단체 회원 170명이 참여한 대규모 전시는 당시 많은 관심을 받았다. 남백회 결성 40년이 흐른 지금 남백회 회원이었던 청년 작가들은 현재 광주를 대표하는 중견 작가가 됐다. 이번 남백회 리마인드 전시에는 20년 동안 정기 그룹전에 세 차례 이상 참여했던 이강하·양경모·문명호·박동신·변재현·박진·안태영·박소빈 등 9명 회원들의 초기 작품(1980-90년대)과 자신만의 개성있는 작품 세계를 완성해 간 최근 작품작 등 모두 18여점을 선보인다. 또 남백회 아카이브 자료도 만날 수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양림동’

우리가 머물렀던 흔적들 김승택 개인전, 17일까지 호랑가시나무

김승택 작가 개인전이 오는 17일까지 광주 양림동 호랑가시나무아트스튜디오에서 열린다. ‘Different Memories’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김 작가는 오래된 골목, 작은 상점들, 사라져가는 건물 등 지금까지 꾸준히 관심을 두고 작업해 온 결과물을 선보인다. 작가는 산책하듯 걸으며 만나는 오브제와 풍경들을 프레임에 담고 재구성해 평면에 옮겨 또 다른 의미를 부여했다. 그가 담아내는 도시의 풍경들은 우리가 머물고 있는 삶의 공간이자 생활의 흔적이다. /김미은 기자 mekim@

김 작가의 작업 방식은 단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그려내는 데서 머물지 않는다. 삶의 흔적을 사진에 담아내고 여러 사진 조각들을 오려 붙이고 마우스로 드로잉 한 후 컴퓨터 화면 위에 아날로그 공간을 디지털 방식으로 재현한다. 삶을 품고 있고 시각화된 도시의 이미지는 수많은 이야기와 의미를 전해 준다. 도시 속 인간 삶의 변화와 함께 그 풍경 또한 끊임없이 변신한다. 변화해 가는 도시 일부분을 선택해 화면 속에 하나하나 붙여가는 작가의 작업은 역사를 기록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김미은 기자 mekim@



1990년대 남백회 회원들의 모습.

Advertisement for '국제보청기' (International Hearing Aid) featuring various award logo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different branches.

Advertisement for '현대건설' (Hyundai Construction) featuring '슬라브 옥상' (Slab Rooftop) and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Roofing and Steel Waterproofing) services.